

# 韓日兩民族의 漢字·漢文의 受容과 發展에 關한 比較研究 [I]

梁 重 海\*

## 目 次

- |                    |                      |
|--------------------|----------------------|
| I. 序 論             | Ⅲ. 漢字·漢文 傳來의 考古學的 資料 |
| Ⅱ. 漢字·漢文 傳來의 史的 資料 | 1. 韓土 遺存 最古의 漢字·漢文   |
| 1. 古朝鮮時代의 漢土文化의 影響 | 1. 日本 遺存 最古의 漢字·漢文   |
| 2. 三國時代의 漢字·漢文     | Ⅳ. 結 論               |
| 3. 上代日本의 漢字·漢文     |                      |

## I. 序 論

오늘 世界 各國이 使用하고 있는 文字를 크게 나눈다면, 로마文字를 日常의 正書法에 採用하고 있는 로마文字圈과, 漢字만을 쓰든지 아니면 漢字와 自己나라의 文字와를 混合하여 쓰든지 하는 漢字文化圈으로 二大別할 수 있다.

로마文字라고 하면, 古代 로마 中部 伊太利에서 일어나서, 에트루리아(Etruria) 文化를 거쳐 西 회랍의 文字를 받아들이고 長期間에 걸쳐 變貌 改作된 表音文字인 字母文字인 것이며, 漢字라고 함은 漢土에서 만들어져, 象形文字가 基礎를 이루면서 發展된 表音文字인 單語文字인 것이다.<sup>1)</sup>

漢字만을 가지고 文章을 만들어본 나라로서는 中國을 비롯 韓國 日本 越南 등이며, 漢字는 그 根源은 漢土이지만, 東洋 各國에 널리 普及되어, 옛날에는 마치 一般的인 글의 基準型과 같이 생각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漢土文化·漢土의 思想이, 東洋文化思想의 根源이 됨에 따른 한

1. 李昌雨, “假名文字成立と その問題點”(韓國日本學會「日本學報」第10輯 1982), p. 131.

\* 本 研究는 1985年度 文敎部 研究助成費의 支援에 의해 수행되었음

\* 師範大學 敎授

必然的인 現象이라고 보아진다.<sup>2)</sup>

漢字文化圈이라면 이는 漢字가 創造된 漢土를 비롯, 그 普及地域인 東아시아諸國, 곧 韓國 日本 越南등이라고 하겠거니와, 이는 漢土에서 創造된 漢字가 東쪽으로는 韓半島를 거쳐 日本列島로 傳播된 것이고, 한편 西쪽으로는 越南 등으로 傳播된 것이라고 하겠다.

本論考에서는 이와 같이 해서 東쪽으로 傳播되어온 漢字를 韓日兩民族은 언제,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받아들였느냐 하는 問題에 關해서 먼저 比較 考察하고(本稿[I]), 이어 이를 어떻게 受用하고 發展시켰느냐 하는 問題에 關해서 比較 考察(次稿[II])하고자 한다.

漢字·漢文의 傳來에 關해서는 大體로 두가지의 方法으로 考察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文獻記錄에 나타난 史料를 中心으로 한 考察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考古學的 乃至는 金石學的 遺物이 提示하는 資料를 中心으로 한 考察인 것이다. 여기 韓半島와 日本列島에 있어서의 漢字·漢文의 傳來에 關한 考察도 이 두 가지의 方法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은 勿論이다.

## II. 漢字·漢文 傳來의 史的 資料

### 1. 古朝鮮時代의 漢土文化의 影響

韓半島는 漢土大陸과 陸接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漢土文化의 影響을 받았으며, 여기에 남다른 獨特한 文化를 이룩하였다. 그러면 그 漢土文化의 表記文字인 漢字는 언제 어떤 經路로 韓半島까지 傳來되었을까.

韓半島의 歷史를 敘述할 때, 三國時代 以前을 三韓時代, 三韓時代以前을 通稱 古朝鮮時代로 부르고 있다. 이 古朝鮮을 다시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면, 그 一部를 否認하는 見解도 있다.

#### ○檀君朝鮮

檀君朝鮮에 關해서는 韓國側史料인 「三國遺事」劈頭「古朝鮮」條에 보임이 初出이며, 中國側史料에는 보이지 않는다. 檀君은 歷史的 事實로 보기보다는 한 神話로 處理함이 마땅하다는 論이 支配的인 듯하다. 그 神話에 보이는 곰(熊)과 범(虎)을 Totem으로 보는 見解에서, 이 때의 文化的 段階를 新石器時代의 思维方式로 보는 解釋이 있으나, 한편 檀君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選民思想으로 본다면, 靑銅器時代의 生活에서 나온 思维方式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sup>3)</sup>

이 檀君朝鮮은, 漢字·漢文의 傳來 關係에서는 論外로 다룰 수 밖에 없다.

#### ○箕子朝鮮

古朝鮮에서 檀君朝鮮 다음은 箕子朝鮮이다.

2) 趙潤濟, “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60) p. 227.

3) 千寬宇,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p. 71.

李秉岐는 「史記」에 「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이라 있다고 하였으나,<sup>4)</sup> 筆者로는, 이 漢土 最古의 正史인 「史記」에서 箕子朝鮮 關聯 記錄을 接할 수가 없다. 筆者의 調査로는 同書 「朝鮮 列傳」에 衛滿에 關한 記錄부터 確認할 수 있다.

箕子朝鮮에 關한 記錄은 後漢의 班固가 撰한 「漢書」 地理志에서 樂浪郡 二十五縣을 舉論하고 있는 大목에서

朝鮮 應召曰武王封  
箕子於朝鮮

이란 記錄이 보이는 바, 이는 周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하였다는 初出의 史料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의 朝鮮이란 朝鮮縣인 것으로 版圖는 極히 狹小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同書 地理志에는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師古曰史記云武王伐紂封箕子於朝鮮與此不同). 教其民以禮義田蠶織作, 樂浪朝鮮民設禁八條.

라 하였으니, 이는 殷의 衰亡과 함께 箕子가 朝鮮으로 건너와서 그 백성을 禮로써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事實이라면, 이 箕子の 東來로 하여, 이를 契機로, 漢字文化도 傳來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明 王圻의 「三才圖會」에도

箕子率中國五千人, 入朝鮮, 其詩書禮樂醫藥卜筮, 皆從而往, 教以詩書, 使知中國禮樂之制.

라고 하여 箕子の 東來說과 함께 이를 契機로 詩書禮樂의 傳來까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側史料에서는, 「三國遺事」 古朝鮮 條에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唐 襄矩傳云, 高麗本孤竹國<sub>今海州</sub>, 周以封箕子爲朝鮮.

이라고 하여, 周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함에 檀君은 藏唐京으로 이를 避하였다가, 뒤에 阿斯達의 山神이 되었다 함이다. 여기에서는 檀君朝鮮과 箕子朝鮮과의 先後關係를 論하고 있음을 알겠거니와, 箕子は 本來 殷人으로 檀君을 이어 朝鮮의 統治者가 되었다고 함이다.

이에 關聯하여 李秉岐는,

殷末의 箕子東來說은 歷史上 많은 問題點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 때의 우리 나라는 韓半島만이

4) 李秉岐, 「國漢文學史」, 「國文學全史」上, 新丘文化社, 1958), p. 71.

아니라 滿洲 等地까지 版圖가 펼쳐 있었으니, 周가 殷을 滅할 때, 殷의 宗室인 箕子가 亡命하여 滿洲 等地 어디로 왔음즉도 하다. 이런 事實을 「尙書」 「史記」에는 周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하였다 하였고 「三才圖會」에는 「箕子率中國五千人 入朝鮮 其詩書禮樂醫藥卜筮皆從而往, 使知中國禮樂之制」라 하였다.<sup>5)</sup>

라고 하여 箕子の 東來說을 肯定하고 있다. 日本의 漢文學者 山岸德平도

西紀前三世紀頃 比較的 큰 國家的 組織을 形成하고 있던 것은 朝鮮半島의 北部에 存在하였던 이른바 古朝鮮과 臨屯이었다. 古朝鮮은 처음은 遼東에 있던 王國이었으나, 殷이 滅亡하였을 때(紀元前 1100年頃) 그 王族이었던 箕子가 周의 武王에 依하여 朝鮮의 北部에 封해졌던 것이다. 그 때, 殷人集團을 이끌고 와서 建設한 것이다.<sup>6)</sup>

라고 하여 箕子の 東來說을 肯定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史學者 李丙燾는

나의 연구한 바로는 이 조선은 箕子나 그 後裔와는 관계가 없는 土著社會로서 이미 고대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그 말엽에는 확실히 君長의 氏姓을 중국식으로 韓氏라고 일컫는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韓氏朝鮮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이 韓氏朝鮮의 紀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서기전 3·4세기경에는 그 세력이 서쪽으로는 遼東地方과 東으로는 지금 平北의 서부 및 平南의 대부분을 포함한 농경지대를 판도로 하여 주위의 眞番·臨屯 등 계부족국가의 盟主 노릇을 하였던 것 같다.<sup>7)</sup>

라고 하여 箕子東來說을 否認하고, 이어 箕子の 八條의 禁法도 古朝鮮民 本有의 習慣法이라고 하였다.<sup>8)</sup>

崔南善은 箕子朝鮮을 太陽의 아들이라는 뜻의 <개이지朝鮮>, 또는 <奇子朝鮮>이라 하여 箕子朝鮮을 否認하는 立場이고<sup>9)</sup> 金哲峻도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다.<sup>10)</sup>

그 出自가 어떻든, 이 箕子에 對한 論議는 殷王朝과 周王朝와의 交替期에 있어서 이루어진 歷史를 背景으로 하고 있음이니, 이와 같이 漢土의 政治的 社會的 波動은 漢土文化를 漢土에서 밀어 내어 韓半島까지 傳播하는 契機가 되어 왔음은 그 뒤 여러 歷史的 段階에서도 證明되고 있는 것이다.

箕子東來說은, 그 眞否를 且置하고서라도 이 무렵에 서서히 漢土文化는 그 東方 韓半島로 영향을 끼쳐왔을 것이므로, 韓半島 어느 地域의 一部層의 社會에는 漢字도 傳來되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5) 上揭書.

6) 山岸德平, “日本漢文學史論考”, (岩波書店, 1974), p. 1

7)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文化”, (瑞文堂, 1974), pp. 65~66.

8) 上揭書, p. 81.

9) 千寬宇, 前揭書, p. 192.

10) 上揭書, p. 192.

○ 衛滿朝鮮

韓半島의 古代史上 檀君朝鮮 箕子朝鮮 다음에 이어지는 部族國家가 衛滿朝鮮인 것이다. 이 衛滿朝鮮에 關한 記錄은 漢土 正史中 가장 오랜 「史記」의 <朝鮮列傳>의 序頭에

朝鮮王滿者(註略)故燕人也(註略),自始燕時,嘗略屬眞番朝鮮(註略),爲置吏築障塞(註略),秦滅燕屬遠東外徼,漢與爲遠難守,復修遠東故塞,至浪水爲界(註略),屬燕,燕王盧綰反,入匈奴,滿亡命聚黨千餘人,椎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浪水,居秦放空地,上下郡,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儉.

이라 함이 보이고, 다음 「後漢書」 東夷傳 濊條에도,

昔武王封箕子於朝鮮,箕子教以禮義田蠶又置八條之教(中略),其後四十餘世,至朝鮮侯準,自稱王,漢初大亂,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而燕人衛滿擊破準而自王朝鮮,傳國至孫右渠…….

라 하였으며, 다음 「三國志」 魏志 東夷傳 東沃沮條에도

漢初燕亡人衛滿王朝鮮時,沃沮皆屬焉,漢武帝元封二年,伐朝鮮,殺滿孫右渠,分其地爲四郡.

이라 하였으며, 同書 濊條에도,

昔箕子既適朝鮮,作八條之教以教之(中略),其後四十餘世,朝鮮侯准僭號稱王,陳勝等起,天下叛秦,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燕人衛滿,椎結夷服,復來王之,漢武帝伐滅朝鮮,分其地爲四郡.

이라 하였으니, 「史記」, 以降의 中國側史料에 보이는 衛滿에 關한 記錄들을 綜合하면, 衛滿朝鮮의 衛滿은 本是는 燕人으로, 漢土에서 紛亂이 일어났을 때, 이 紛亂 속에서 漢族이 새로운 勢力을 形成해가는 過程에서 많은 流移民이 塞外로 밀려나 移動하게 될 즈음, 燕人 衛滿도 韓半島로 밀려나와 箕子朝鮮을 밀어내고 衛滿朝鮮을 세웠다 함이다.

韓土側史料인 「三國遺事」에는 이 衛滿이 魏滿으로 表記되고 있거니와,

燕人魏滿亡命,聚黨千餘人,東走出塞,渡浪水,居秦放空地上下郡,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都王儉,以兵威侵降其旁小邑,眞番臨屯皆來服屬,方數千里 傳子至孫右渠.

라 하였으니, 이는 漢土側 史料인 「史記」를 비롯한 前掲 諸史料를 參照하였음이 文面에서 確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既存의 모든 史料에서 衛滿의 出自에 對해서는 燕人으로 되고 있으나 여기에 異議도 없지 않다.

이에 對해서 李丙燾는,

「史記」朝鮮列傳을 비롯하여 그 後 모든 史書에 衛滿을 燕人이라고 明記해 있기 때문에 일찌기 누구나 여기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나의 寡聞으로는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과연 순전한 漢人계통의 燕인이었는지 나는 큰 문제로 생각한다.<sup>11)</sup>

라 하여, 衛滿燕人說에 疑問을 提起하고, 衛滿은 純漢人系統의 燕人이 아니고, 燕領 遼東內의 土着 朝鮮系統의 子孫이라고 하였다.<sup>12)</sup>

衛滿朝鮮을 세운 衛滿의 族元이 純漢人系統이든 燕領 遼東에 土着生活을 해온 朝鮮人系統이든, 그들의 무리가 燕領에서 朝鮮領으로 流入하여와 支配勢力을 形成하였다고 하면, 그들의 社會에는 어떤 形式이든 漢字가 들어왔었음을 推定할 수 있는 터이나, 記錄上으로 나타나 있는 史料는 없다.

衛滿의 族元이 누구이건, 當時의 國際大勢上으로는 漢의 膨脹과정에서 나타난 人物이라고 보겠으며,<sup>13)</sup> 다음 漢의 武帝가 衛滿朝鮮의 支配圈이었던 平壤方面에 樂浪郡을, 信川方面에 眞番郡을, 德源方面에 臨屯郡을 둔 것이 西紀一〇八年이고, 朝鮮圈外인 鴨綠江邊 通溝方面에 玄菟郡을 둔 것이 그 이듬해로 되어 있으니, 이른바 漢四郡을 設置하면서는 朝鮮 땅에도 高度의 漢文化가 들어왔었음을 遺跡遺物을 通하여서도 알 수 있다 하겠다.

徐首生은, 「漢四郡時代에는 우리 社會에 漢字·漢文이 널리 普及되어 우리의 思想感情을 漢文으로 表現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하였으며,<sup>14)</sup> 金鎮英도, 「漢字學成立의 앞 段階인 漢字의 傳來時期는 精確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늦어도 漢四郡 以前으로 소급될 수 있다. 漢四郡 統治時期와 그 地域에서는 당연히 漢字를 使用했을 것이다」라고<sup>15)</sup> 한 陳述 등은, 韓土에의 漢字의 傳來를 漢四郡 以前으로 溯及시키고 있거니와, 筆者의 생각으로도 古記錄에 보이는 箕子朝鮮 衛滿朝鮮의 成立이란, 漢族의 勢力의 膨脹過程에서 漢族의 勢力이 漢의 圈外로 影響을 끼치고 있던 段階의 歷史的 事實, 乃至는 所傳으로 보는 터이다.

따라서, 이른바 箕子朝鮮時代로부터 衛滿朝鮮時代에 이르는 時期에 漢字·漢文은 韓土 領內로 들어 왔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2. 三國時代의 漢字·漢文

### ○高句麗

高句麗는 三國中 가장 일찌기 漢土의 正史에 나타나 있는 部族國家이다. 그 初出이 「後漢書」

11) 李丙燾, 前揭書, p. 70.

12) 上揭書, pp. 70~74.

13) 千寬宇, 前揭書, p. 196.

14) 徐首生, “古代漢文學研究”, (國語國文學會, 「漢文學研究」, 正音社, 1981), p. 17.

15) 金鎮英, “移植期の 漢文學”, (黃根江外 「韓國文學研究入門」, 知識產業社, 1982), p. 178.

東夷傳과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夫餘와 三韓의 記錄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으나, 漢字와의 關聯 記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高句麗는 三國中 漢土와는 가장 近接되어 있는 관계로 他 二國보다 漢字·漢文을 일찌기 받아들이고 發展시켰던 것이니, 「三國史記」 高句麗 嬰陽王條에

十一年春正月,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라 하였으니, 高句麗에서는 ①國初(37B.C)부터 文字(漢字)를 使用하였으며, ②일찍부터 「留記」라는 記事 一百卷이 있었던 것을, ③嬰陽王 十一年(600 AD 新羅 眞平王 22年)에 李文眞(大學博士)에게 古史를 줄여 新集 五卷을 엮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高句麗에서는 國初부터 漢字가 使用되었음은 勿論, 國史 編纂事業도 가장 일찌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周書」 異域的 高句麗條에도,

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라는 記錄이 보이는 바, 이는 當世의 高句麗에는 詩經 書經 易經 春秋 禮記 등 五經과 史記 漢書 後漢書 등 三史와 三國志, 晉陽秋 등이 널리 읽혔던 것으로, 漢文에 對한 水準을 推測할 수 있게 한다.<sup>16)</sup>

「三國史記」에는 琉璃王이 製作한 黃鳥歌 四言四句가 收錄되고 있고,<sup>17)</sup> 오늘 國文學界에서는 이를 놓고 漢詩나 漢譯歌나 하는 問題도 論難이 되고 있으나, 文中 「乃感而歌曰云云」으로 보아, 原歌는 漢文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琉璃王 當時 上流層에서는 이만한 漢詩는 能히 지을 수 있었으리라고 보아진다.<sup>18)</sup>

#### ○百濟

百濟의 漢字·漢文에 關한 記錄으로는 「三國史記」, 近肖古王三十年秋七月條에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라는 記錄이 보인다. 近肖古王三十年이면 西紀三七五年이 되거니와, 高句麗에서는 이보다 三年前인 小獸林王二年에 漢文教育을 위한 太學이 세워지면서,<sup>19)</sup> 子弟教育이 制度的으로 마련되어지

16) 文叢奎, 「韓國漢文學」, (二友出版社, 1982), p. 147.

1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琉璃王 三年條.

18) 趙潤濟, 「國文學史」, (東邦文化社, 1949), p. 23.

1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二年條.

던 무렵이며, 한편 日本側史料에 依하면, 이 近肖古王代에 王仁博士가 論語와 千字文을 가지고 日本으로 건너가, 日本 漢文學을 일으켰다는 記錄이<sup>20)</sup> 있음을 보더라도, 「三國史記」의 이 記錄은, 百濟에 있어서의 文字使用의 始初를 알리는 記錄이라기보다는 高興博士에 依하여 비로소 「百濟書紀」가 記錄編纂되었음을 보이는 記錄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 같다.

漢土 正史에 百濟에 關한 記錄이 보이기는 「晉書」부터이며<sup>21)</sup>, 「宋書」에 비로소 「百濟國」이라는 獨立된 項을 設定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sup>22)</sup> 그 記載內容中, 百濟王 餘毘가<sup>23)</sup> 宋 文帝 元嘉二十七年(450 AD)에 宋朝에 上書하고 方物을 바쳤으며, 宋 世祖 孝武帝 大明二年(458 AD)에는 百濟王 餘慶<sup>4)</sup>(蓋鹵王·慶司)이 上表文을 바치고 있는데, 그 上表文의 內容은

臣國累葉，偏受殊恩，文武良輔，世蒙朝爵，行冠軍右賢王餘紀等十一人，忠勤宜在顯進，伏願垂愍，並聽賜除云云

으로 되고 있는 名文章이다. 「宋書」에 보이는 百濟 蓋鹵王의 이 上表文이 百濟 朝廷에서 지어진 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더 考察해볼 餘地가 있으나, 이 蓋鹵王代인 五世紀 中葉에는 漢字使用이 盛行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 ○新羅

韓土 三國時代의 三國中 新羅는 漢土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漢土文化의 影響도 가장 뒤늦게 받은 地域이라고 하겠다. 漢土 正史에서 高句麗에 關한 記錄은 「後漢書」나 「三國志」에 이미 보이고 있고, 百濟에 關한 記錄도 「宋書」에 보이고 있으나, 新羅에 關한 記錄만은 그 뒤에 나온 「梁書」에 보임이 그 初出이다.<sup>25)</sup> 곧 同書에 비로소 高句麗 百濟 다음에 新羅에 關한 記錄이 收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新羅部族의 族元에 關한 記錄이 보이는 바, 먼저 「其先本辰韓種也」라 하여 놓고

傳言，秦世亡人，避役來適馬韓，馬韓割其東界居之以秦人，故名之曰秦韓，其言語名物有似中國人云云

이라 하여, 「三國志」 魏志東夷傳 辰韓條에 보이는 內容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다만 文字에

20) 「日本書紀」 應神天皇 十六年條.

21) 「晉書」, 簡文帝紀, 「咸安二年春正月 辛丑, 百濟·林邑王, 各遣使貢方物, 六月遣使, 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云云」

22) 「宋書」, 夷蠻傳, 百濟國條.

23) 「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三毘有王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二十毘有王」

24) 「三國史記」 百濟本紀, 「蓋鹵王(咸云近蓋囊) 諱慶司, 毘有之長子云云」  
「三國遺事」 卷一, 王曆, 「第二十一蓋鹵王名慶司」

25) 「梁書」, 諸夷傳

關한 記錄으로는

無文字刻木爲信

이라 하였고, 뒤를 이어 나온 「陳書」「魏書」「周書」 등의 文獻에서는 新羅에 關한 記錄이 보이지 않다가, 「隋書」에 와서 다시 보이는 바,<sup>26)</sup> 內容中 文字와 關聯이 있는 記錄으로는,

其文字甲兵同於中國, ……風俗刑政衣服略與高麗百濟同.

이라고 하였다. 族元問題에서 新羅人이 三韓時代의 辰韓種이고 辰韓族이 秦之亡人이었다면 그들이 避役來適할 때에 漢字를 將來하였을 것이기도 하나, 그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記錄上 前揭書인 「梁書」에는 「無文字刻木爲信」이라고 하였으나, 「梁書」란 七世紀初(唐의 魏思廉~637)에 이루어진 史料이므로, 이 때는 新羅에 漢文이 盛行할 때임을 생각한다면, 「梁書」의 記錄은 史料 蒐集過程에서 新羅의 事情에 밝지 못하였거나, 新羅에는 固有文字가 없다는 뜻일 수 밖에 없고, 後揭書인 「隋書」에, 「其文字甲兵 同於中國云云」함은 漢字의 使用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新羅에 漢字·漢文이 傳來된 時期를 알 길이 없으나, 第22代 智證王代(500~514 AD)와 第23代 法興王代(514~540 AD)에 와서 急速히 發達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그것은, 智證王代에 와서 <麻立干>이라는 固有한 말로 부르던 支配者를 <王>이라 稱하였고, 中國式 喪服制와 州郡의 이름을 定하였으며, 法興王 때에는 法令의 公布, 佛敎의 公許, 年號의 使用, 기타 國家制度의 制定과정에서 漢文의 使用 範圍가 넓어졌을 것으로 推測되기 때문이다.

「三國史記」에는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條에

六年秋七月, 伊殘異斯夫奏曰, 國史者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殘居柴夫等, 廣集文士, 俾之修撰.

이란 記錄이 보인다. 곧 眞興王六年(545 AD) 國史가 編纂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以前에 漢文이 크게 發達하였다고 함이요, 이러한 事實은 眞興王代에 이루어진 巡狩管境碑 4基가 現存하고 있음으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

韓國史에서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을 合하여 通稱 古朝鮮이라고 부르고 있거니와, 이 가운데서 檀君朝鮮만은 韓族固有의 民族信仰의 神話에 根源하고 있는 것이니 別途로 다룬다 하더라도 箕子朝鮮 衛滿朝鮮만은 그 族元問題가 어떻든, 漢土內에서의 漢族 勢力의 膨脹에 隨伴한 角逐 過程에서 賣來된 韓半島에의 影響이었다고 한다면, 이 箕子朝鮮 衛滿朝鮮의 兩朝鮮時代에 漢土文化인 漢文文化는 韓半島까지 影響을 끼쳤을 것임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特히 古朝鮮末에 가서 韓半島 北部에 漢四郡이 設置되면서부터는 樂浪郡을 中心으로 漢土의 高度의 漢文化가 形

26) 「隋書」, 新羅傳

成되었을 것임은 樂浪遺跡을 통해서도 證明되는 터이다.

三國時代의 漢文文化는 地理的 與件에 따라 高句麗 百濟 新羅 등 三國의 事情이 제각기 다르나, 高句麗에서는 國初부터 漢文이 發達하고 있었음은 疑心할 바 없고, 百濟 新羅로 올수록 漢文의 發達은 늦어진 것은 事實이나, 或二·三紀頃, 늦어도 三·四世紀까지는 漢字·漢文이 三國에서 널리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上代日本の 漢字·漢文

日本列島와 漢土와의 初期 交流, 나아가서는 漢土文化의 傳來를 알아보기 위하여, 漢土 正史 24史中 日本 關聯의 傳을 收錄한 史書를 찾으면 아래와 같다.

	王 朝	撰者(~沒年)	書 名	卷 次	傳·志名	呼 稱
1	後 漢	班 固(~92)	漢 書	28·下	地 理 志	倭 人
2	兩朝·宋	范 曄(~445)	後漢書	115	東 夷 傳	倭
3	晉	陳 壽(~297)	三國志	30	東 夷 傳	倭 人
4	唐	房於齡(~648)	晉 書	97	四 夷 傳	倭 人
5	梁	沈 約(~513)	宋 書	97	蠻 夷 傳	倭 國
6	梁	蕭子顯(~537)	南齊書	58	東南夷傳	倭 國
7	唐	姚思廉(~637)	梁 書	54	諸 夷 傳	倭
8	唐	李延壽(? )	南 史	79	東 夷 傳	倭 國
9	唐	"	北 史	94	東 夷 傳	倭 國
10	唐	魏 徵(~643)	隋 書	81	倭 國 傳	倭 國
11	五代·晉	劉 昫(~946)	舊唐書	199·上	東夷倭國傳	倭國, 日本國
12	宋	宋 祁(~1061)	新唐書	220	東 夷 傳	日 本
13	元	脫 脫(~1355)	宋 史	491	外 國	日本國
14	明	宋 濂(~1755)	元 史	208	外國(外夷)	日 本
15	清		明 史	322	外 國	日 本

漢土 正史中 上掲의 15書가 日本列島와 關聯된 記錄을 掲載하고 있거니와, 이들 記錄을 보면, 日本列島關聯記錄 初出의 「漢書」의 記錄, 「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云」을 爲始로, 以下 各 史書마다 倭의 位置를 記述한 다음, 「通於漢者三十許國」(後漢書), 「漢時有朝見者」(三國志), 「至魏時有三十國通好」(晉書), 「世修貢職」(宋書) 등과 같은 抽象的인 記錄만이 보일 뿐, 漢字·漢文에 關聯이 있을 만한 記錄은 보이지 않다가, 「隋書」<sup>27)</sup>와 「北史」<sup>28)</sup>에 이르러, 비로소 「無文字唯刻木結繩, 敬佛法於百濟求得佛經, 始有文字」라는 記錄이 보이고 있다. 이 內容은

27) 「北史」, 東夷傳, 倭國條.

28) 「隋書」, 倭國傳

前後 두 史料가 完全히 同一하다 하겠거니와, 「北史」라는 史書가 全적으로 「梁書」「隋書」를 따르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sup>29)</sup> 引用文中 「於百濟求得佛經 始有文字云云」은 「日本書紀」所傳 百濟의 王仁博士 文字傳來의 史料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掲 史料中 注目할 만한 記錄으로는 「後漢書」 東夷傳의 記錄中,

建武中元二年, 倭奴國, 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라는 記錄이 보이고 있다는 事實이다.

徳川時代인 光格天皇의 天命四年(1784 AD) 二月, 筑前國 糟屋郡 志賀島 吋崎(Kanouzaki)의 石窟에서 發見되고 現在 黑田家에 收藏되고 있다는 <金印>에는 <漢委奴國王>이라는 刻文이 있거니와, 日本 學界에서는 이 「漢委奴國王」이라는 刻文이 있는 金印이 後漢 光武帝의 中元二年(57 AD)에 倭奴國의 使者에게 下賜한 印綬라는 것이다. 이 事實이 認定된다면, 倭人의 손에서 이루어진 漢字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金印에 새겨진 漢字는 金石學上 알려진 日本列島 最古의 現存 漢字가 되는 것이다.

齋部廣成은 그의 著 「古語拾遺」(807 AD) 序文에서<sup>30)</sup>

蓋聞上古之世, 未有文字, 貴賤老少, 口口相傳, 前言往行, 存而不忘.

이라고 하여 漢字 傳來 以前에는 文字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으나, 卜部懷賢은 그의 著 「釋日本紀」에서<sup>31)</sup>

先師說云, 漢字傳來我朝者, 應神天皇御宇也, 於和字者, 其起可在神代歟, 龜卜之術者, 起自神代(中略), 無文字者, 豈可成卜哉.

라 하였으니, 이는 漢字 傳來 以前에 日本固有의 文字인 <和字>(神代文字)가 있었다는 것이고, 平田篤胤도 「神字日文傳」을 著述하여 神代文字의 存在를 主張하였는 바, 親友 伴信友는 「假字本末」을 著述하여 그의 妄誕을 攻擊한 것이 서로 絶交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래서 前掲한 齋部廣成의 「蓋聞上古之世, 未有文字, 貴賤老少, 口口相傳」이 通說로 되고 있다.

그러면, 日本에 漢字·漢文은 언제 傳來되었을까. 이에 關한 史料로는 日本側史料로서 王仁博士傳來說 以上이 나타나지 않는다.

「古事記」中卷 應神天皇條에는 아래와 같은 記錄이 보인다.

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 牝馬壹疋 付阿知吉師以貢上 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 亦貢上橫刀及大鏡, 又

29) 和田 清外, 「隋書倭國傳」, (岩波文庫, 1977), p. 33.

30)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 (角川書店, 1984), p. 17.

31) 上掲書

科賜百濟國，若有賢人者貢上，故受命以貢上人，名和邇吉師，即論語十卷千字文一卷，并十一卷，付是人即貢進 此和邇吉師 善文首等祖

곧, 百濟의 近肖古王(照古王)은 使臣 阿直岐를 시켜 雌雄 各一匹씩의 말과 橫刀와 大鏡을 日本으로 보냈던 바, 日皇은 百濟使臣 阿直岐에게 百濟의 賢人을 보내어 주었으면 하는 請이 있어, 이렇게 해서 보내진 學者가 和邇吉師(王仁)라는 것인데, 和邇는 日本으로 건너 가면서 論語十卷 千字文 一卷 등 都合 十一卷을 가지고 건너간 것이 日本에의 漢字·漢文의 初傳來라는 것이다.

이 짧은 文章 속에 <貢上·貢進>이란 말이 다섯 차례나 쓰여지고 있는데, 「古事記」란 史料의 性格을 생각하면, 그럴 수 밖에 없었음이 理解될 것이다.

이 內容이 「古事記」 바로 뒤에 나온 「日本書紀」卷第十 應神天皇條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十五年秋八月，壬戌朔丁卯，百濟王遣阿直岐，貢良馬二匹(中略)，阿直岐亦能讀經典 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

이 記錄은 「古事記」의 記錄보다는 좀 더 具體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應神天皇 十五年(284 AD)에 貢馬使臣으로 日本에 건너갔던 阿直岐는 經典을 잘 읽었으므로 天皇은 太子인 菟道稚郎子の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王仁이 論語와 千字文을 日本으로 傳來하기 前에, 阿直岐가 能讀하였다는 經典의 存在인 것이다. 「日本書紀」는 이 글에 이어

十六年春二月，王仁來之，即太子菟道稚郎子師之，諸典籍於王仁莫不通達，故所謂王仁者，是書首等之始祖也。是歲百濟阿花王薨。

이라 하였으니, 應神天皇 十六年(285 AD)에는 王仁이 日本으로 건너가서, 앞에 건너갔던 阿直岐에 代身하여 王子인 菟道稚郎子の 스승이 되었으며, 王仁은 諸典籍에 通達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함이다.

이 「古事記」(和銅5年, 712AD)와 「日本書紀」(養老4年, 720AD)는 所謂 <記紀>로 並稱되는 日本 最古의 史料이거니와, 이 兩史料에 보이는 上揭 漢字·漢文에 關聯되는 記錄을 相互比較한 바를 圖表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史料	渡來者	渡來時期		能力	教學事實	持參物
		日本王朝	百濟王朝			
古事記	阿知吉師	應神朝	照古王朝	—		牡牝馬各一疋 橫刀·大鏡
	和邇吉師	應神朝	照古王朝	—		論語十卷 千字文·一卷
日本書紀	阿直岐	應神十五年	—	能讀經典	太子師焉	良馬二疋
	王仁	應神十六年	阿莘王末年	通達諸典籍	太子師之	

이 表에서 볼 수 있듯, 渡來者가 「古事記」에서는 〈阿知吉師〉와 〈和邇吉師〉, 「日本書紀」에서는 〈阿直岐〉와 〈王仁〉, 여기에서 〈阿知=阿直岐〉, 〈和邇=王仁〉임은 쉬이 알 수 있다. 〈吉師〉는 使臣의 義 또는 官名 인바, 이는 韓土의 職官名으로, 〈吉士〉〈吉次〉〈稽次〉로도 보이며,<sup>32)</sup> 이는 「日本書紀」에서도, 〈吉士〉로 記錄된 例를 볼 수 있다.<sup>33)</sup> 日本史料에서 〈使主〉와도 通하는 職官名 임을 推定할 수 있다.<sup>34)</sup>

다음, 王仁(和邇)이 日本으로 건너간 時期의 問題이다. 「古事記」를 中心으로 생각한다면 同書 應神記에 收錄되고 있기 때문에 應神天皇의 在位年間(270~310 AD)을 指目할 수 있고, 百濟의 〈照古王〉代라고, 하였으나 百濟 王曆에 〈照古王〉은 없고, 이와 가장 가깝게 解釋되는 百濟王으로는 〈近肖古王〉(346~375 AD)을 指摘할 수 있다.<sup>35)</sup> 이를 「日本書紀」에서는 應神天皇 十五年과 十六年으로 記錄하고 있으니, 日本書紀 紀年 換算法에 依하면 이는 西紀二八四年과 二八五年이 된다. 그러나 오늘 大部分의 學者들은 이렇게 보지 않은 傾向이다. 日本의 史學者 關 晃은 王仁 博士의 日本渡來時期에 對해서 「書紀紀年二五二年에서 干支 二運을 내려서 三七二年」이 된다고 말하고, 「阿直岐는 三七二年에 온 것이 되므로 王仁은 그 보다 좀 늦어서 왔다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sup>36)</sup> 日本의 國文學者 市古貞治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日本書紀에는 應神十六年(四〇五 相當),<sup>37)</sup> 百濟로부터 王仁이 來朝하고 皇太子 菟道稚郎子가 이를 師事한 것으로 記錄」되고 있다고 하여, 王仁의 渡來를 五世紀初로 잡고 있는가 하면, 日本의 漢學者들의 모임인 斯文會에서 엮어 낸 「日本漢學年表」에서는 阿直岐 王仁의 日本에로의 渡來를 西紀三九一年 以後 四一三年 以前의 未確定年代로 잡으면서, 「續日本紀」延曆九年(790 AD) 七月 十九日 百濟王 仁貞等의 上表文에 王仁 渡來의 異傳이 있음을 記錄하고 있다.<sup>38)</sup>

上記 諸說中, 關 晃은 〈書紀紀年 二五二年〉이라고 하고 있으나, 書紀紀年에서 應神朝는 西紀二七〇~三一〇年이 되므로 〈二五二年〉이란 나올 수가 없으며, 書紀의 應神十五年, 十六年은 書紀紀年으로도 西紀二八四年과 二八五年이 된다. 市古貞治는 〈應神十六年(四〇五 相當)〉이라고 하였으나, 〈應神十六年〉이 西紀四〇五年이 되는 換算法을 밝히지 않고 있다. 斯文會編 「日本漢學年表」에서는 阿直岐 王仁의 渡來를 西紀三九一年~四一三年으로 잡고 있으면서도 그럴 만한 理由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 阿直岐 王仁의 日本에로의 渡來年度에 關해서는 「日本書紀」記錄中 「是歲百濟阿花王薨」이란 記錄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王仁의 日本에로의 渡來年度에 百濟王이 死亡하였다는 것은 한 歷史的 年代의 確認 基準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百濟의 〈阿花王〉이라 함은 〈阿芳

32) 「三國史記」卷三十七, 職官上.

33) 「日本書紀」繼體天皇紀 廿四年條 「奉使之後, 更自讓曰, 其調吉士」, 敏達天皇紀 六年條 「遣小黑吉士 宰於百濟國」

34) 上揭書, 應神天皇紀, 廿年秋九月條, 「倭漢直祖 阿知使主, 其子都加使主」

35) 金思燁, 「日本の 萬葉集」, (民音社, 1983), p. 147.

36) 關 晃, 「歸化人」, (至文堂, 1952), p. 42.

37) 市古貞治, 「日本文學全史」, (學燈社, 1978), p. 52.

38) 斯文會, 「日本漢學年表」, (大修館書店, 1977), p. 8.

王)이란 別稱도 있는<sup>39)</sup> <阿莘王>(〈阿莘王〉으로 誤記될 可能性)을 指稱하는 것으로 보겠으며, 阿莘王의 在位期間은 西紀三九二年~四〇五年으로 볼 수 있으니, 同王의 薨年은 西紀四〇五年이 된다. 이는 「日本書紀」記錄 應神天皇 十六年과 關聯된다. 곧 應神天況 十六년이 書紀紀年 西紀二八五年이 되거니와, 「日本書紀」上代の 紀年은 干支 二巡 百二十年 내려 計算<sup>40)</sup>함이 常識으로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王仁의 渡日 年代는 <應神天皇 16年の 書紀紀年+干支2巡=阿莘王末年>으로 正答이 나온다. 이렇게 計算한 王仁의 渡日 年代는 西紀四〇五年, 곧 五世紀初가 된다.

한편 日本에로의 漢字·漢文 傳來의 契機로 이른바 神功皇后의 新羅征伐을 學論하는 日本 學者도 있음을 附言하거니와,<sup>41)</sup> 이는 이른바 神功皇后란 人物이 架空의 人物이고,<sup>42)</sup> 神功皇后의 新羅征伐의 史實은 造作에 不過한 것이기 때문에 再論의 餘地가 없다.

以上, 日本으로 漢字·漢文을 傳來한 歷史的 事實을 考察하였거니와, 結局은 西紀四〇五年인 五世紀初에 渡日한 百濟의 王仁으로 歸結되고 만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王仁보다 한 해 앞서 渡日한 阿直岐의 存在에 對해서 慎重히 再考할 必要가 있음을 強調한다.

書紀의 記錄을 忠實히 따른다면, 王仁보다 一年 앞서 渡日한 阿直岐는 經書를 能讀하였으며, 王子 菟道稚郎子の 스승이 되었다고 하였고, 王仁에 對해서도 諸典籍에 通達하여 王子인 菟道稚郎子の 스승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 前後 兩者가 遂行한 일은 同一한 것인데도, 「古事記」에서 阿直岐나 王仁이 共히 王子의 스승이 되었다는 記錄은 보이지 않은 채, 먼저 渡來한 阿直岐에게 「百濟國若有賢人者貢上」이란 應神天皇의 말에 依하여 渡來한 者가 王仁이라는 것과, 「日本書紀」에도 없는 <論語十卷 千字文 一卷, 并十一卷云云>이 있어 具體的인 漢籍名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王仁의 史的 意義에 가리워져서 阿直岐에 對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생각이 든다. 「日本書紀」에 보인 阿直岐와 王仁은 같은 일을 遂行하고 있을 뿐 아니라, 阿直岐가 <能讀經典> 하였으면 阿直岐가 벌써 經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며, <太子師焉>하였다면 經典을 놓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阿直岐는 王仁보다 먼저 日本에 漢字·漢文·漢籍을 傳한 人物인 것이다.

### Ⅲ. 漢字·漢文 傳來의 考古學的 資料

#### 1. 漢土 遺存 最古의 漢字·漢文

漢土 遺存 最古의 漢字는 現段階에서는 樂浪遺跡에서 發掘된 秦戈와 塼 등을 들 수 있다. 樂浪遺跡의 이 秦戈와 塼 등을 通하여 얻어낸 結論은 韓半島의 北部에는 漢四郡時代 훨씬 以前에 漢文이 傳來되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는 事實이다.

一九二五年 平壤의 樂浪遺跡에서 發掘된 秦戈에는 數行의 秦篆小篆의 文字가 보이고 있는 바,

39) 「三國遺事」卷一, 「第十七阿莘王, 一作阿芳…」.

40)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岩波書店, 1978), p. 580, 補注 3-18.

41) 猪口篤志, 前掲書, p. 20.

42) 日本古典文學大系, 前掲書, p. 583, 補注4.

그 正面에는 陰刻으로

洛都武上郡庫

라는 6字가 새겨져 있고, 다시 그 背面에는

廿五年上郡守廟  
造高奴工師賈  
丞申工薪註

라는 18字<sup>43)</sup>가 陽刻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 秦戈는 秦始皇 때(232 BC)의 武器로서 이러한 考古學的 資料는, 韓半島 北部에는 漢四郡 以前에 漢字·漢文이 傳來되었을 可能性을 充分히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人 學者 關野 貞·稻葉岩吉의 해설을 보면, 上郡·高奴·洛都 등은 秦代의 地名으로서, 이 戈銘에 보인 郡縣은 秦時에 둔 것이므로, 이 戈의 年代가 秦 以前으로는 소급하지 못할 것인 동시에, 廿五年은 漢代에는 없으므로, 秦戈에 나타난 廿五年은 곧 秦始皇廿五年(232 BC)이라고 주장하였다.<sup>44)</sup>

韓土에서는 西紀前一一二二년에 箕子朝鮮이 成立되고 西紀前 一九四年에 衛滿朝鮮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西紀前二三二年은 箕子朝鮮末에 該當된다.

樂浪遺跡에서 發見된 遺物中 漢字·漢文과 關聯이 있는 資料로는 上記의 秦戈만이 아니라, <樂浪禮官> 등의 글자를 새긴 磚(벽돌)과 <樂浪太守章> <朝鮮古尉> <遼東> <玄菟太守領 佟利造> 등의 글자를 찍은 封泥(秘密文書를 封한 진흙) 등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이 樂浪文化는 韓半島 北部에 漢文을 普及시켜 주는 한편 그의 高度로 發達된 金屬文化를 傳하여 주어서 韓半島의 文化를 急速하게 發展시켜준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거니와, 여기에서 發見된 磚文도 現在 70餘種에 達한다. 그 中年號가 새겨져있고 讀破가 可能的한 것을 年代順으로 分類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年 號	紀 年	西 紀	備 考
建 武	十六年(東漢·光武帝)	40	青·史
光 和	五年(東漢·靈帝)	182	青·史
興 平	二年(東漢·獻帝)	195	青
이상 帶方郡設置 이전이라 認定			
嘉 平	二年(魏)	250	青·史
景 元	三年(魏)	260	青

43) 徐首生, 前掲書, p.14.

44) 上掲書

年 號	紀 年	西 紀	備 考
泰 始	四年(晉)	268	史
泰 始	七年(魏)	271	青·史
泰 始	十年(魏)	274	青·史
咸 寧	元年(魏)	275	青·史
太 康	四年(魏)	283	史
太 康	七年(魏)	286	青·史
太 康	九年(魏)	288	史
元 康	五年(魏)	295	史
建 始	元年(魏)	301	青
太 安	二年(魏)	303	青·史
이상 樂浪郡滅亡(313 AD) 이전이라 認定			
泰 寧	元年(東晉)	323	青
咸 和	十年(東晉)	335	青·史
建 元	三年(東晉)	345	史
永 和	八年(東晉)	352	史
永 和	九年(東晉)	353	青
이상 樂浪郡滅亡後 廣開土王 即位(391) 이전이라 認定			
元 興	三年(東晉)	404	青
이상 長壽王 平壤遷都(427) 이전이라 認定			

\*備考中[青]은 靑丘學叢9號「平壤出土 永和九年 玄菟太守在銘塼에 관한 考察」에 例示된 資料에 依함이며 [史]는 李洪植編 「國史大事典」에 依함이다.

이들 銘塼中 <建武十六年>이란 記錄이 있는 銘塼은 漢四郡時代에 만들어진 것이다.

韓半島 現存 最古의 古碑로는 「黏蟬縣 神祠碑」(略稱 黏蟬碑)를 든다. 이는 平南 龍岡郡 海雲面 新井里 雲井洞에서 發見된 碑로서 日學者 今西 龍에 依하여 調査 報告된 以後 세상에 알려진 古碑인 것이다. 높이 約1.51m, 너비 約1.09m, 두께 約0.12m의 花崗岩 自然石의 一面을 갈아서 세로 綫 7行을 等分하여 劃內에 刻字한 것이다. 現在 判讀할 수 있는 것이 59字로 字徑은 4寸의 漢隸書體인 것이다. 內容은 山神에 祭祀를 올렸던 것이 記錄되고 있다. <黏蟬>란 樂浪郡의 屬縣인 것이며,<sup>45)</sup> 그 年代는 後漢 章帝 元和 二年(85AD)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 밖의 漢土의 古碑로는 高句麗의 廣開土王陵碑와 新羅 眞興王의 巡狩管境碑를 들 수 있다.

高句麗의 廣開土王陵碑는 中國 滿州의 輯安縣 通溝에 있는 高句麗 19代王인 廣開土王 王陵碑로서 그 原名은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大王」이라고 새겨져 있다. 高句麗 20代 長壽王二年(414 AD) 甲寅에 세워진 碑石이다. 碑文은 合 44行 1,800餘字를 漢隸體로 大書하여, 漢隸書體로서는 가장 雄樸한 代表인 碑石이며, 더러 泐缺된 文字들이 있기는 하나 대강 大意를 짐작할 만큼

45) 「漢書」, 地理志, 樂浪郡屬縣二十五縣中에 「黏蟬服虔曰蟬音提」가 보인다.

保存되어 있다. 이것은 高句麗 全盛期の 한 遺物이거니와 文套는 高麗 「李相國集」에 傳하는 東明王古記와도 다르며, 中國의 漢文과도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이 漢文은 漢文이면서도 韓國의 漢文인 것이다.<sup>46)</sup>

新羅의 巡狩管境碑란 眞興王代에 세워진 4碑를 말한다.<sup>47)</sup>

그 하나는 <昌寧碑>이니, 眞興王二二年辛巳(561 AD) 二月 一日에 세운 것으로, 지금의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邑 橋上洞 火旺山麓에 있다. 높이 約 1.78m, 너비 約 0.16m, 두께 約 0.03m의 自然石에 全 27行, 每行 27字 乃至 28字에 泐缺된 字가 많은 碑石이다. 둘째는 <北漢山碑>이니 建立年代는 確認할 수 없으나 大體로 眞興王 二六年에 建立된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며,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恩平은 1949.8.5, 서울特別市로 管轄이 移管됨) 舊基里에서 지금은 國立博物館으로 移轉(지금 그 자리에는 模造碑石이 세워져 있음) 되고 있는데, 花崗石으로, 碑의 높이는 約 1.55m, 너비는 約 0.71m의 크기인데, 全 2行, 每行 32字에 泐缺된 字가 많다. 셋째는 <黃草嶺碑>이니, 咸鏡南道 咸州郡 下岐川面 眞興里에 있으며, 크기는 높이 約 1.15m, 너비 約 0.46m이며, 全 12行, 每行 25字의 碑石으로 泐缺된 字가 많다. 이 碑는 眞興王 二九年(568 AD)에 세워진 것으로, 碑文의 內容은 다음의 <磨雲嶺碑>와 거의 同一한 것이다. 넷째는 <磨雲嶺碑>이니, 咸鏡南道 利原郡 東面 寺洞, 磨雲嶺脈 雲霧山側에 있으며, 크기는 높이 約 1.46m, 너비 約 0.44m, 두께 約 0.3m이다. 碑文은 前面 10行 各行 26字, 後面 8行 各行 25字로 泐缺된 字가 比較的 적어 大部分 判讀할 수 있다. 이 碑는 眞興王二九年(565 AD) 八月二十一日 癸未에 세워졌다는 年代가 碑文에서 判讀되고 있다.

韓土에 現存하고 있는 金石學의 資料로는 以上の, 西紀八五年의 建立으로 推定되는 黏蟬縣神詞碑를 비롯 五世紀初(414 AD)의 廣開土王陵碑, 그리고 六世紀 中葉의 新羅 古碑 4基 등으로 當時의 漢文의 水準을 推定할 수 있는 遺物들이다.

그러나 韓民族이 언제부터 漢字·漢文에 接하게 되었었느냐 하는 問題는 까마득히 오랜 일이어서, 樂浪文化의 遺物을 通하여 이를 면밀히 檢討하여 볼 때에 漢四郡 以前 곧 古朝鮮時代에 벌써 韓民族은 漢字·漢文에 接하고 있었으며, 漢四郡時代에는 韓土의 北部地域의 上部層에서는 이 漢字를 書記에 日用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하겠다.

## 2. 日本 遺存 最古의 漢字·漢文

日本の 現存 最古의 漢字를 말하고자 할 때에 後漢의 光武帝가 倭奴國王에게 下賜하였다는 金印을 舉論하지 않을 수 없다.

문, 「後漢書」 東夷傳 倭條에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46) 李秉岐, 前掲書, p. 463.

47) 太田 亮, “日韓古代史資料”, (磯部甲陽堂, 1928), p. 155參照.

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 중 <建武中元二年>이란 西紀五七년에 該當된다.

한편, 日本의 德川時代인 光格天皇의 天命四年(1784 AD) 二月, 筑前國 糟屋郡 志賀島 叶崎(Kanouzaki)의 石窟에서 發見되어 現在 黑田家に 所藏되고 있는 金印에는 「漢委奴國王」이라는 刻文이 있거니와 日本 學界 一部에서는, 上掲 「後漢書」 東夷傳 倭條에 보이고 있는 「倭奴國 奉貢朝賀……光武賜以印綬」의 印綬가 이 「漢委奴國王」이라는 刻文의 金印이라는 것이다.<sup>48)</sup>

이 金印에 對해서는 學界에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論議되고 있거니와, 既發表의 論著로도 藤井貞幹의 「好古日錄」, 菅政友의 「漢籍倭人考」, 久米邦武의 「住吉神社는 倭奴國의 祖神」, 星野恒의 「日本國號考」, 三宅米吉의 「漢委奴國印考」와 「委奴國王金印偽作說批判」 등에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倭國之極南界>에 位置하고 있다는 <倭奴國>, 그리고 「後漢書」의 <倭奴國>과 金印의 <委奴國>과의 關係 등,<sup>49)</sup>이 金印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아직도 많다. 이 金印이 「後漢書」, 東夷傳 倭條에 보이는 光武帝 下賜의 金印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倭人의 손으로 이루어진 漢字는 아니라 하더라도, 日本列島에 傳來된 現存 最古의 漢字가 될 것이다.

다음의 資料로는, 奈良縣 天理市の 東大寺山古墳 出土의 環頭太刀의 銘文을 들 수 있다. 이는 環頭太刀 刀身 背面에 金象嵌으로

· 中平□□五月丙午, 造作文刀, 百鍊清剛, 上應星霜, 卍卍卍卍

이라는 24字의 銘文을 가지고 있다.<sup>50)</sup> <中平>은 後漢 靈帝時代의 年號로서 <中平元年>은 西紀一八四年이 된다. 여기의 <中平>은 中平元年에서 同七年까지의 어느 해인지는 決定할 수 없다.

다음 島根縣 大原郡 加茂町の 神原神社 古墳 出土의 「三角緣神獸鏡」의 銘文을 들 수 있는데, 여기의 銘文에는 <景初三年>이란 年號를 가지고 있다.<sup>51)</sup> 이 <景初>는 魏의 年號로서, 西紀二三七~二三九年間의 年號이기 때문에, <景初三年>은 西紀二三九年이 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古鏡으로서, 大阪府 和泉市 上代黃金塚 古墳 出土의 「畫文帶階段式神獸鏡」, 奈良縣 葛城郡 廣陵町 新山 出土의 「方格四神鏡」, 東京都 狛江市 龜塚古墳 出土의 「人物畫像鏡」, 佐賀縣 東松浦郡 谷口 出土의 「三神三獸鏡」 등 대개가 비슷한 銘文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다음, 山梨縣 西八代郡 鳥居原古墳 出土의 銅鏡이 있는데 여기에는 <赤鳥>라는 年號가 記錄되고 있다. <赤鳥>라는 年號는 吳의 年號로서 西紀二三八~二五〇年間이 되는 것이니, 이 銅鏡도 三世紀頃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奈良縣 天理市 石上神宮藏의 七枝刀는 百濟의 近肖古王 때 倭國으로 보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니와, 여기 銘文에는 <泰和四>라는 年號가 있다. 泰和四年(369 AD)은 百濟 近肖古王二四年이 되는 해로서, 이 무렵을 前後하여 王仁이 渡日하고 있음을 日本史料가 提示하고 있는 것

48) 山岸德平, 前掲書, p. 3.

49) 上掲書, 藤井貞幹 “好古日錄”에서는 金印의 <委奴>는 이 金印이 出土한 筑前の 怡土郡의 <怡土>로 보고 있다.

50) 市古貞治, 前掲書, p. 50.

51) 上掲書

이다.

以上の 銘文들은 日本에서 書刻된 것이 아니라 漢土人 또는 韓土人에 依하여 書刻된 것인데, 어떤 經路를 거쳐 日本 땅으로 들어간 것이다. 川端善明이 想像한 것처럼, 當時 이 文字를 보던 倭土의 人們들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운 文樣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極히 少數의 人們들만이 그 意味를 解讀하였을 것으로 본다.<sup>52)</sup>

倭土에 居住하는 人의 手으로 이루어진 現存 最古의 漢文은 熊本縣 玉名市 江田町の 船山古墳 出土의 太刀 背面에 새겨진 銘文으로서 大體로 아래와 같이 判讀되어지고 있다.<sup>53)</sup>

治天下復國國齒大王世, 奉國典國人名无利<sup>(簡)</sup> 呂, 八月中, 用大<sup>(延)</sup>鑄釜, 并四尺<sup>(延)</sup>廷刀, 八十鍊六十摺三寸  
上好口刀, 願此刀者, 長壽, 子孫注得其思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sup>(簡)</sup> 加, 書者張安也.

文頭に 〈治天下復宮彌都齒大王〉으로 推測되는 部分이 있어, 이를 〈多遲比瑞齒別天皇〉(Tazihino mizufawakeno Sumeramikoto. 反正天皇)로 보고, 「宋書」에서 말하는 倭의 五王中 〈珍〉으로 比定, 西紀 四四〇年~四五〇年頃으로 생각함이 通說로<sup>54)</sup> 되고 있는 文章인 것이다. 〈書者張安也〉로 본다면 이 文章은 渡來人의 手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太刀와 함께 出土한 遺品中에는 韓土의 形式의 物건이 많다고 하므로, 이 銘文도 元來 韓半島에서 記錄한 것이 아닌가 疑問을 提示하는 者도 없지는 않으나,<sup>55)</sup> 固有名表記에서 〈張安〉은 韓土人, 또는 渡來人이라고 하더라도, 文中 〈无利 呂〉, 〈伊太加〉 등은 日本의 萬葉假名(mannyoukana) 表記法의 人名이라는데 注目할 必要가 있다.

다음에 學論될 수 있는 것으로 和歌山縣 隅田八幡宮의 「人物畫像鏡銘」을 들 수 있다. 이는 거의 判讀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記錄되고 있다.<sup>56)</sup>

癸未年八月日十大王年男弟王在意柴沙加宮時斯麻念長奉遣開中費直穢人今州利二人等取白上同二百  
早作此竟

이는 「癸未年八月, 日十大王의 年 男弟王 意柴沙加의 宮에 在한 時에 斯麻, 長奉(壽)를 念하며, 開中의 費直·穢人 今州利等으로 白上同(=銅) 二百早을 取하여 此竟(鏡)을 作함」 정도로 읽혀지고 있다. 〈癸未年八月 日十大王〉은 〈癸未年八月日 十大王〉 등으로 訓法에도 問題가 있고, 製作年代도 이 〈癸未〉를 中心으로 四四三年인가 五〇三年인가 더 내려가서 五三三年·六二三年 등의 說이 있을 수 있다.<sup>57)</sup> 이 銅鏡의 作者 〈開中費直〉도 百濟系의 渡來人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今州利〉의 경우는 〈穢人〉이라고 밝히고 있음은 아직 倭土에 定着되지 못한 人物인 듯하다. 다

52) 上掲書

53) 猪口篤志, 前掲書, p. 26.

54) 市古貞治, 前掲書, p. 51.

55) 上掲書

56) 上掲書

57) 上掲書

만 〈意柴沙加〉(ishisaka), 〈斯麻〉(shima) 등은 萬葉假名式 表記法임을 알 수 있다.

前掲의 船山古墳 出土의 太刀의 銘이나 이 「人物畫像鏡銘」은 漢文文章이기는 하면서도 純粹한 漢文이 아니다. 俗漢文 또는 倭化漢文이라고 할 수 있는 文章으로서, 漢土에서 傳來된 漢文의 受容過程에서 韓土에서나 倭土에서나 共通으로 보여 주었던 過渡期的인 한 文體의 形態라고 할 수 있겠다.

#### IV. 結 論

史料를 綜合하여 보면 韓土의 北部에는 漢四郡 以前, 곧 箕子朝鮮(韓氏朝鮮) 衛滿朝鮮 때에 이 미 漢字·漢文이 傳來되고 있었으며, 漢四郡時代에는 高度의 漢文化가 形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箕子朝鮮의 箕子나 衛滿朝鮮의 衛滿의 族元問題에 對해서는 아직 뚜렷한 結論이 나 있지 않은 段階이기는 하나, 이들은 漢土內에 있어서 膨脹되어가는 漢族의 勢力에 밀리어 나와 韓土 北部에 定着, 새로운 部族國家를 세운 支配者들인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그 當時 漢土에서 韓土 北部로 移動해온 部族의 一部 上部層에서는 漢字를 使用하고 있었음을 推定할 수 있을 뿐 아니다. 漢四郡時代에는 漢族이 韓土 北部에 植民地로서의 四郡을 두어 政治적으로 掌握하고 있었으니, 高度의 漢土文化가 물밀듯이 밀려들어, 韓土內에서도 하나의 漢文化圈을 形成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樂浪文化라고 하겠다.

이러한 史的 事實들은 樂浪文化의 考古學的 遺物로도 充分히 立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樂浪文化遺跡 出土品中 秦始皇代의 武器인 秦戈에 刻記된 文字는 箕子朝鮮(韓氏朝鮮) 末期, 衛滿朝鮮 以前에 만들어진 遺品の 文字인 것이며, 이 밖에 70餘種에 달하는 埴土와 封泥들은 漢四郡時代의 文字들인 것이다. 韓土 最古의 古碑로 後漢 章帝 元和二年(85 AD)에 세워진 것으로 推定되는 平安南道 龍岡郡 海雲面 新井里 雲坪洞에서 發見된 〈黏蟬縣神詞碑〉도 樂浪郡의 屬縣이었던 黏蟬縣에 세워졌던 것이면서 現存의 碑石인 것이다.

三國時代로 내려와서, 三國中 高句麗는 가장 일찍이 漢文學이 發達하였던 것이니, 國初부터 漢字·漢文을 使用하였을 뿐 아니라, 百卷에 달하는 量의 〈留記〉라는 歷史書를 가지고 있었다 함은 高句麗의 漢文의 水準을 알겠으며, 現存한 廣開土王陵碑가 이 當時의 高句麗 漢文文章의 水準을 具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百濟·新羅는 高句麗에 比해서는 後進國인 것이나, 百濟의 경우는 4世紀의 近肖古王 때에 百濟書紀를 編纂하였음은 勿論 阿莘王 末年인 5世紀初, 阿直岐와 王仁이 日本으로 건너가서 日本 漢文學의 元祖가 되었다 함은 百濟의 漢文學의 水準을 또한 推定할 만하다. 新羅의 漢文學은 三國中 가장 後進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地理的 條件에서 온 所致인 것이며, 現存하는 眞興王之 巡狩管境碑 4基는 六世紀의 金石學的 遺物로서 당시의 新羅 漢文學을 알려주고 있는 한 證據가 된다. 新羅는 漢族의 表意文字인 漢字를 受容함에 있어서 漢字의 音과 訓을 借用하는, 이른바 借字表記法을 使用하여 散文이나 歌謠를 記錄하는 〈吏讀〉와 〈鄉札〉의 表記法에 劃期的인 進展을 보였던 것이나, 이에 關해서는 後續 論稿인 「韓日兩民族의 漢字·漢文의 受容에 關한

比較研究 [II]에서 詳論하기로 한다.

한편, 日本列島에 있어서의 漢字·漢文 傳來의 史的 事實로는, 韓土의 北部에 漢四郡이 形成 되었을 무렵, 倭는 漢과의 通好가 있었다는 記錄이 보이므로,<sup>58)</sup> 或이면 이 무렵을 前後한 時期에 漢字·漢文의 傳來가 있었을 만한 일이기도 하나, 史料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으며, 記錄된 資料에 보이는 日本에로의 漢字·漢文의 傳來는 百濟의 阿直岐와 王仁에 依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니, 五世紀初(405 AD)의 일이다. 이는 日本側 史料인 「日本書紀」에 依함인 것이나, 이 史實에 對해서는 漢土側 正史인 「隋書」의 記錄도 뒷받침 해주고 있다.

漢字의 日本에로의 傳來에 關한 金石學의 資料로서는 後漢 光武帝가 倭奴國 使臣을 通하여 倭奴國王에게 下賜하였다는 印綬 與否로 論難되고 있는 「漢委奴國王」이라는 刻文의 金印을 舉論하기도 하나, 現段階로는 疑問點이 많으며, 現存한 金石學의 資料中 年代가 밝혀진 가장 오랜 것으로는 奈良縣 天理市 東大山古墳에서 發掘된 環頭太刀의 銘文과 熊本縣 船山古墳에서 出土된 太刀 背面의 銘文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前者는 〈中平〉이라는 年代表記가 있음으로 하여 後漢 靈帝時代인 西紀一八四年頃의 文字라면, 後者는 日本의 皇統에서 反正天皇代(440~450 AD)로 推定되고 있는 通說을 따른다면 西紀四四〇年頃의 文字가 되는 것이다. 前者는 漢土에서 書刻된 것이 日本으로 들어온 現存 最古의 文字라면, 後者는 그 銘文 속에 〈書者張安也〉란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百濟系 渡來人의 글인 듯하기는 하나 日本內에서 書刻된 文字로는, 또한 現存 最古의 文字임에 分明하다. 이 遺物의 年代는 阿直岐·王仁의 渡日의 時期(405 AD)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時期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漢土에서 創製된 漢字·漢文이 東으로 韓土 및 日本으로 傳播되어온 過程을 考察하였거니와, 歷史的 資料로서는, 이른바 箕子朝鮮 衛滿朝鮮時代에 漢字는 이미 韓土 領內에 傳來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考古學的 資料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겠으나, 韓半島全域(三國)의 上部社會에서 漢字·漢文의 使用이 盛行되기는 혹 二·三世紀頃 늦어도 三·四世紀頃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漢字 使用의 盛行은 公 隣國 日本으로 그 影響을 끼쳤다 할 수 있으니, 歷史的 資料에서 볼 때, 五世紀初에 百濟를 通하여 漢字·漢文은 日本으로 傳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金石學의 資料에 依할 경우는 三世紀頃까지 이를 溯及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研究의 進行에 따라서는 一世紀頃까지 더욱 溯及될 可能性도 있다

58) 「後漢書」, 東夷傳, 倭條.

## Summary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and Japan's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I]

*Yang Choong-hae*

The area of Chinese culture includes Korea, Japan, and Vietnam, where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used, as well as China, where they were created. This paper is to make a comparative investigation into the exact period, the actual route, and the way in which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system were introduced and developed in Korea and Japan, which countries are nearest geographically or culturally.

Two kinds of methods can be recommended in this investigation. One is the method by means of documentary records, and the other is the method by means of epigraphical or archeological data.

Close analysis and scrutiny of extant documents has made it clear that Korean people came into contacts with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in the period of Old Chosŏn which forewent Four Han Chinese Commanderies, and that specifically in Koguryŏ Chinese characters were officially used from its beginning (about a century before Christ), which facts were confirmed by many archeological data found in Lo-lang's cultural remains.

In the case of Japan,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system were introduced by way of Paekche at the latter part of the fourth century or at the beginning of the fifth century, which fact can be known through the help of archeological or epigraphical data.

The problem of how the Chinese characters and writing system introduced as above were developed by Korean and Japanese people will be investigated in the paper which will succeed this paper.